

## 고등학생의 성격요인과 학업지연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 성실성과 신경증을 중심으로<sup>†</sup>

강은비<sup>†</sup>      김동일<sup>†††</sup>      김명찬  
신서초등학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중 성실성과 신경증,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지연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성실성, 신경증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의 6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15명을 대상으로 성격,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지연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 첫째, 성실성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성실성이 높을수록 학업지연 수준은 낮아지는데, 문제중심적 대처를 할수록 학업지연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경증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도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신경증이 높을수록 학업지연 수준은 높아지는데, 문제중심적 대처를 할수록 학업지연 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의 하위 유형으로서 문제중심적 대처를 일관되게 기능적, 적응적으로 보아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격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지연행동 개입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 주요어 : 학업지연,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중심적 대처, 성실성, 신경증

† 본 연구는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SSK) 지원을 받아 진행하였음(2010-B00218).

†† 제 1저자,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논문에 기초하였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동일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10-1동 610호. Tel : 02-880-7636 / Fax : 02-878-2075 / E-mail : dikimedu@snu.ac.kr

지연행동은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행동양상이다. 이러한 지연행동은 적극적 성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적응의 문제로 비춰지고(Van Eerde, 2003; Kachgal, Hansen & Nutter, 2001), 이로 인해 사람들이 정서적 불편감을 경험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심리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다(류지연, 2002; 최지연, 2001).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학업지연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지만, 대부분 대학생(Steel, 2007; Hill, Hill, Chabot & Barrall, 1978; Ellis & Knuas, 1977; 계수영, 박기환, 엄소영, 2011; 임성문, 2006; 박승호, 서은희, 2005)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교생의 80% 이상이 입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천석준, 김영아, 2011)하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관련 스트레스는 사회적 문제라 하겠다. 아울러 국내의 경우 고등학생에게 학업은 일종의 발달 과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김동일 외, 2013). 이수미, 양난미(2011) 등은 학업문제로 인한 고통이 가장 큰 대상이 고등학생임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학업지연 행동 연구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고교생의 15-20% 잠재력과 수행 간의 중대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Mandel & Marcus, 1988) 이들은 학업지연행동을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고등학생의 학업지연행동 연구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지연행동은 주어진 과제를 불필요하게 미루는 것으로 이러한 행동이 학업 영역에서 나타날 때 이를 학업지연행동이라고 한다(Ferrari, 2001). 학업지연행동은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불편감(Lay, 1986), 낮은 학업성취(Rothblum, Solomon, & Murakami, 1986) 등의 문제를 드러낸다. 학업지연행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다.

지연 행동은 시간과 상황에 따른 안정성을 가지며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격 특성을 반영한다(김광숙, 김정희, 2007). 성격특성으로서 학업지연행동은 비교적 안정된 특성으로 학업장면에서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안정된 성격특성으로서의 학업지연 행동은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그 행동의 부정적 속성이 지속된다는 점을 추론해 볼 때 학업지연행동과 성격 특성 간의 연구는 학업지연행동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성격 패턴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특정 성격 유형이 학업지연행동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 특정한 성격 유형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학업지연행동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다.

학업지연과 성격간의 관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성격 5요인 연구를 들 수 있는데(김광숙, 김정희, 2007) 각 성격 요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우호성, 개방성 중 외향성은 지연행동과는 비일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김광숙, 김정희, 2007). 관계가 없거나(Lay, 1986; Schouwenburg & Lay, 1995), 부적 상관이 나타나거나(Lay, Kovacs & Danto, 1998), 정적 상관이 나타나는 등(McCown, Petzel & Rupert,

1987) 연구 결과 간의 불일치를 드러내는데 이는 외향성과 지연 행동 간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걸 의미한다. 우호성과 개방성 역시 학업지연 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Schouwenburg & Lay, 1995). 반면에 성실성과 신경증은 학업지연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 유형에 해당한다(김광숙, 김정희, 2007; 김지영, 2005; 민혜경, 2008; Schouwenburg & Lay, 1995; Watson, 200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성격 유형 중 성실성과 신경증이 학업지연 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성실성이란 충동적 행동을 억제하고 계획적으로 자기 생활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고, 신경증이란 낮은 자존감, 높은 충동성, 우울이나 좌절 등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 된다(홍성두, 2011). 성실성은 지연행동을 설명 하는 주요 변수에 해당한다(Johnson & Bloom, 1995; Watson, 2001). 아울러 성실성은 지연행동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김광숙, 김정희, 2007; 민혜경, 2008; Lay & Brokeshire, 1997; Schouwenburg & Lay, 1995). 신경증은 성실성 다음으로 학업지연과 정적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지영, 2005; 김현정, 2003; Watson, 2001; Johnson & Bloom, 1995). 중학생의 누적된 학업성취 수준을 선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요인 역시 성실성과 신경증으로 나타나고 있다(홍성두, 2011). 이는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업지연행동과 성실성, 신경증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중 학업지연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비교적 일관적이라고 알려진(Steel, 2007) 성실성과 신경증을 중심으로 학업지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성실성, 신경증이 학업지연행동과 유의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은 지연 행동이 특정 성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학업지연행동을 조절하거나 개입할 때 개인의 성격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성실성이 낮거나 신경증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지연행동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업지연행동을 조절할 때는 성실성과 신경증 등의 성격 특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거나, '완충'해주는 전략적 변인을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성격 요인과 지연행동 간의 조절변인 탐색은 치료적 개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Van Eerde, 2003; Steel, 2007).

성격과 학업지연 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란 개인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으로서 개인과 환경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요구와 동반되는 스트레스 및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을 의미한다(Lazarus & Folkman, 1984). 조절변인으로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제안하는 이유는 첫째, 성격과 학업지연 행동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반영하기에 성실성과 신경증이 학업지연 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개입이 가능한 변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실성, 신경증은 모두 스트레스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희(1987)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사고 등으로 분류하였다. 소망적사고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사건과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적 지지추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방식이다.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변경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과제지향적인 행동이고 정서중심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를 조절하는 대처 방식을 말한다.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사회적지지 추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외부로 투여된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정서중심적 대처방식과 소망적사고 대처방식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서미, 최보영, 조한익, 2006). Silver(1974)의 연구에서는 지연행동의 과정에서 회피를 야기하는 핵심적 요인이 스트레스라고 주장하였다. 스트레스는 여러 방향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은 개인은 시간 활용을 계획할 때 해당 과제에 할당할 시간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지연의 관계를 살펴 본 Ferrari, Johnson, McCown(1995)의 연구 결과 문제중심적 대처는 지연행동 척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정서중심적 대처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회피적 대처는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Haycock, McCathy와 Skay(1998)의 연구에서 지연행동은 과제를 시작하는 기술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과제지향(task-oriented)' 혹은 '문제중심(problem-focused)' 대처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지연(2001)의 연구에서는 문제중심, 정서중심, 회피적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이 지연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대처양식 집단에 따른 학업지연 행동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문제중심적 대처를 의미하는 '사려형 대처집단'의 학업지연 행동 수준은 정서중심적 대처를 나타내는 '역기능적 정서대처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동귀, 박현주, 2009).

한편, 성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에서는 스트레스 상황보다는 개인차와 개인내의 안정적인 구조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이옥주, 2003). Bolger(1990)은 대처방식(coping)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작용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하였고 Vollrath(2001)은 대처방식을 성격 과정으로서 다시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마련한 Lazarus와 Folkman(1984)도 성격이 스트레스의 평가와 대처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격은 특정 대처 방식을 사용하거나 제한하면서 대처 방식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스트레스 수준이나 대처 방식의 효용성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Bolger & Zuckerman, 1995). 이런 측면 때문에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성격특성에 따라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하

지 않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성격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몇몇 연구(Fickova, 2001; McWilliams, Cox, & Enns, 2003)에서는 성격과 대처방식의 상관관계가 0.60 이상으로 나타났고, Vollrath, Torgersen과 Alnaes (1995)은 성격유형이 범상황적인 대처양식의 장기적 예측 요인임을 6년 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국내에서는 성격 5요인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주로 초등학교나 교사를 대상으로 검증되었다(김옥희, 2008; 김남순, 박수만, 2010; 이옥주, 2003; 이화진, 2011; 고춘예, 2012).

Hewitt와 Flett(1996)은 성격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매개모형, 첨가모형, 상호작용모형으로 정리하였다. 이 중 성격요인이 어떻게 개인에게 다양한 스트레스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매개 모형과 상호작용 모형이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Bolger와 Zuckerman(1995)는 연구를 통하여 성격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연합하여 결과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고, 이 틀을 통하여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응차이는 성격에 따른 대처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보여주었다.

Schouwenburg(2004)의 연구를 통해서 성격 요인과 학습지연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성격 5요인에 기반한 미루기 치료에 대한 개입 방향을 제공하면서 성실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행동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학업지연에 대한 기본적인 개입 방향은 행동적으로 지시되어야 하며, 신경증을 구분 짓는 기준이 감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학업지연에 대한 정서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을 본 연구에 비추어 보면, 성실한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외부적, 행동적 노력을 하는 적극적 대처방식이 유용하며, 신경증적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한 내부적, 정서적인 노력을 하는 소극적 대처방식이 유용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성실한 사람은 성취욕구가 강하며, 맡은 일을 철저히 해내고자 하고, 스스로를 능력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김동일, 2012), 과하게 성실한 사람은 경직되어 있고, 융통성이 없으며, 과제에 대한 철저한 수행, 높은 결과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최정락, 2012; Mount et al., 1998). 완벽주의자들이 일의 마무리를 늦추는 지연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임상적 사례(Pacht, 1984; Spitzer, Gibbon, Skodol, Williams & First, 1989)를 볼 때, 성실해도 지연행동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이 미루기를 할 때에는 부정적인 자기개념, 낮은 자아효능감, 자신에 대한 만족감의 부족,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이유를 들 수 있다. 특히, 신경증은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즉 자신이 그 과제를 해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질 때 미루기를 한다. 따라서 신경증적 사람의 학업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서완화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가 및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자신의 정서에 압도되어서 과제에 몰두 할 수 없거나 과제를 회피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 지기 때

문이다. 김수안, 민경환(2006)의 연구에서 정서 강도는 높지만, 정서 명료성이 낮은 압도집단의 경우, 신경증 성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자신의 기분을 능동적으로 조절하지 못하였고,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감 또한 낮았다. 이는 신경증적 성향에 대한 정서 조절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허창구, 이철희, 신강현, 이종현(2010)의 연구에서 신경증은 정서중심 대처를 증가시키고, 직무중심 대처를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정서적 소진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신경증이 부정적 심리 반응에 영향을 미칠 때 소극적 대처의 증가와 적극적 대처의 감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 가능함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신경증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데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모두가 작용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 해준다.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가설 1. 성실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적극적 대처방식(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 연구가설 2. 성실성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소극적 대처(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사고)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 연구가설 3. 신경증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적극적 대처방식(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 연구가설 4. 신경증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는 소극적 대처(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사고)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1~3학년 청소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 지역에 위치한 6개 고등학교에서 실시되었고, 각 고등학교의 1~3학년에게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315부가 수거되었으며 결측치가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00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 내용은 상담학 전공 연구자 5인이 3회에 걸쳐 검토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문항을 청소년 수준에 맞게 수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24명(74.7%), 2학년 63명(21%), 3학년 13명(4.2%)이며, 남학생은 139명(46.3%), 여학생은 161명(56.7%)이었다.

## 측정도구

### 학업지연

학업지연은 Aitken(1982)이 만성적 지연행동을 보이는 대학생들을 선별해내기 위해 개발한 지연행동 척도(Aitken Procrastination)를 박재우(1998)가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Aitken 척도는 본래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상황에서 보이는 미루기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학업적 지연행동에 해당되지 않는 6문항은 삭제하고 사용하였다. 삭제된 문항은 '나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기간 내에 반납하려고 신경쓴다', '나는 약속이나 모임에 자주 늦는다', '나는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에 입고 싶은 옷이 준비되어 있는지 하루 전에 확인한다', '나는 학교에 행사에 있으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도착한다', '나는 거의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도착한다' 등의 다섯 문항은 학교 시스템이 한국과 다른 외국의 상황을 반영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나는 공부 시작하기를 미루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있다면 참석할 것이다' 의 문항은 실제 분석 결과 역문항으로 반응하여 문항 충실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총 13문항으로 수정된 척도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Aitken(198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2로 나타났고, 박재우(1998)의 연구에서는 .5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사용된 수정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84로 확인되었다.

### 스트레스 대처방식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5)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이선주(1995)가 청소년용으로 표준화한 것을 바탕으로 김수주(2002), 김현영(2003)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소망적사고의 4개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로 평정된다. 김수주(2002)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문제중심적 대처가 .73, 사회적지지가 .79, 정서완화적대처가 .64, 소망적사고가 .7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문제중심적 대처가 .74, 사회적지지가 .70, 정서완화적대처가 .57, 소망적사고가 .65, 로 확인되었다.

### 성격 요인 : 성실성과 신경증

본 연구에서 성실성과 신경증은 성격 5요인에 기초하여 김동일(2012)이 개발한 '청소년 BIG 5 성격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성격 5요인에 대한 26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경증은 10개의 하위요인, 그 외 성격요인은 각각 4개씩의 하위요인으로

로 되어 있다. 이 검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 되었으며, 성격 5요인별 각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수용가능한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성실성은 12문항, 신경증은 30문항이며, 응답 방식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척도 타당화 연구(김동일, 2012)에서 나타난 Cronbach's  $\alpha$ 는 성실성이 .84, 신경증이 .93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성실성이 .74, 신경증이 .89로 확인되었다.

##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격요인(성실성, 신경증)과 학업지연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사고)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분석 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변인과 조절변인 중 하나 또는 모두가 연속변인일 경우 연속변인의 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들(Cohen, Cohen, West & Aiken, 2003; MacCallum, Zhang, Preacher, & Rucker, 2002)을 근거로 본 연구의 예측변인인 성격요인과 조절변인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이들 다 연속변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계적 회귀분석을 채택하였다. 또한 연속변인의 속성을 무시하고 절단점을 사용하여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변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손실되고 이로 인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력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위계적 회귀분석은 절단점을 이용한 분석보다 통계적 오류를 낮출 수 있다(Mason, Tu, & Cauce, 1996; Stone-Romero & Anderson, 1994)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변인과 조절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성별, 학년, 성적에 대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고, 그 중 영향력이 확인된 경우, 공변인으로 채택하여 위계적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먼저 1단계에서 공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성실성이나 신경증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때에는 Cohen(1988)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미성 정도인  $f^2$ 값이 Cohen의 임계치인 .02보다 큰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 결 과

###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성격 요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지연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성격요인인 성실성과 신경증은 스트레스대처방식, 학업지연과



<표 1> 성격 요인,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지연 간의 상관 및 평균

	1	2	3	4	5	6	7
1.성실성	-						
2.신경증	-.217**	-					
3.문제중심적 대처	.595**	-.326**	-				
4.사회적지지 추구	.353**	-.243**	.468**	-			
5.정서완화적 대처	.154**	.193**	.275**	.065	-		
6.소망적사고	.104	.221**	.245**	.220**	.522**	-	
7.학업지연	-.616**	.368**	-.449**	-.333**	.212**	.108	-
평균(M)	41.13	72.60	20.52	20.35	24.55	25.36	37.93
표준편차(SD)	6.05	18.30	3.15	3.26	3.27	2.96	7.34

\* $p < .05$ , \*\* $p < .01$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소망적사고를 제외하고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정서완화적 대처와 정적 상관( $r = .154 \sim .595$ ,  $p < .01$ ), 학업지연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r = -.616$ ,  $p < .01$ ) 즉, 성실성이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정서완화적대처를 많이 사용하고 학업지연을 적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신경증은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하고 부적 상관( $r = -.326 \sim -.243$ ,  $p < .01$ ),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사고, 학업지연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93 \sim .368$ ,  $p < .01$ ).

즉, 신경증이 높을수록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를 적게 사용하고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사고를 많이 사용하며 학업지연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는 학업지연과 부적상관이(각각  $r = -.449$ ,  $p < .01$ ,  $r = -.333$ ,  $p < .01$ ) 정서완화적 대처는 정적상관( $r = .212$ ,  $p < .01$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망적사고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지연이 적어지고, 소극적 대처방식 중 정서완화적 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업지연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 성실성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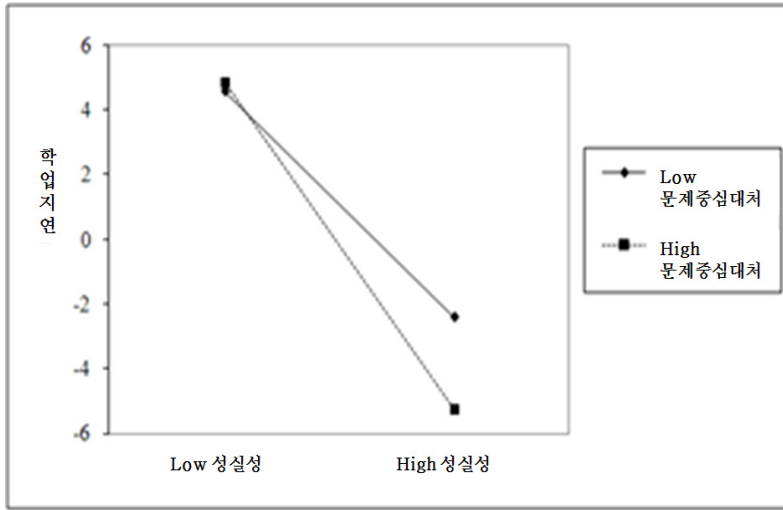
본 연구에 앞서 주요 배경 변인에 따라 성격(성실성, 신경증), 스트레스 대처방식, 학업지연 수준 차이 분석을 통하여 공변인(통제변수)으로의 활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적에 따라 성격 및 학업지연 수준에 차이가 있었고, 성적이 공변인(통제변수)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성실성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B	$\beta$
1	성적	3.99	.25***
	R <sup>2</sup>		.062
	$\Delta R^2$		.062***
2	성적	.99	.06
	성실성	-.67	-.53***
	문제중심대처	-.12	-.12*
	R <sup>2</sup>		.398
	$\Delta R^2$		.336***
3	성적	.84	.05
	성실성	-.69	-.54**
	문제중심대처	-.12	-.13*
	성실성 × 문제중심대처	-.01	-.11*
	R <sup>2</sup>		.421
	$\Delta R^2$		.023*

\* $p < .05$ , \*\* $p < .01$ , \*\*\* $p < .001$

성격요인(성실성, 신경증)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실성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와 신경증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실성과 학업지연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Delta R^2 = .023$ ,  $\Delta F = 4.27$ ,  $p < .05$ ). 그리고 Cohen(1988)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미성 정도인  $f^2$ 는 0.024으로 Cohen의 임계치(.02)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성실성, 문제중심적 대처, 성실성과 문제중심적 대처의 상호작용항 및 상수항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중다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 결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실성이 높을수록 학업지연이 낮아지지만, 문제중심적 대처에 의해 학업지연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중심적 대처는 성실성이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성실성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

반면, 성실성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사고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신경증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신경증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업지연을 준거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적(통제변인)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신경증(예측변인)과 문제중심적 대처(조절변인)를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신경증과 문제중심적 대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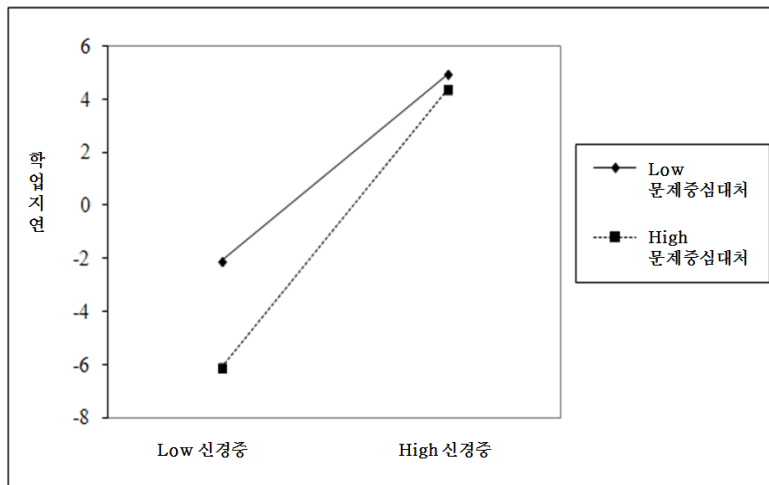
<표 3> 신경증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B	$\beta$
1	성적	4.00	.25***
	R <sup>2</sup>		.062
	$\Delta R^2$		.062***
2	성적	2.35	.15**
	신경증	.23	.22***
	문제중심대처	-.35	-.35***
	R <sup>2</sup>		.274
	$\Delta R^2$		.212***

단계	변인	B	$\beta$
3	성적	2.26	.14
	신경증	.22	.22**
	문제중심	-.35	-.35**
	신경증 × 문제중심대처	.01	-.13*
	$R^2$		.295
	$\Delta R^2$		.02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3에서 제시되었듯이 1단계 회귀분석에서 공변인으로서 성적은 학업지연의 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에서는 공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신경증, 문제중심적 대처가 학업지연 분산의 21.2%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신경증과 문제중심적 대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3단계 모형에서는 상호작용항이 학업지연분산의 2.1%를 추가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신경증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Delta R^2 = .021$ ,  $\Delta F = 4.559$ ,  $p < .05$ ). 또한 Cohen(1988)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미성 정도인  $f^2$ 는 0.021으로 Cohen의 임계치(.02)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신경증, 문제중심적 대처, 신경증과 문제중심적 대처의 상호작용항 및 상수항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중다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 결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경증이 높을수록 학업지연이 높아지는데 문제중심적 대처에 의해 학업지연 수준이 더욱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경증이 증가할 때 문제중심적 대처는 학업지연 수준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신경증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

한편, 신경증과 학업지연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추구,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사고의 유의미한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과 학업지연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차례로 요약하고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성실성은 모든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정적 상관관이 있었고, 신경증은 적극적 대처방식인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와는 부적 상관,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사고와는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우선 성실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상관에서 소망적 사고는 유의한 정적 상관은 아니었지만, 문제중심적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정서완화적 대처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성이 적극적 대처와는 정적 상관, 소극적 대처와는 부적상관을 보인 고춘예(2012), 이화진(201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김옥희(2008)의 연구에서는 성실성이 회피적 대처방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Folkman과 Lazarus(1980)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완화적 대처가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최해연(2000)의 연구에서는 문제중심적 외적 대처와 정서완화적 대처의 하위차원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을 보였는데, 이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완화적 대처가 서로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등 반드시 독립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실한 사람들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스트레스와 걱정으로 유발되는 정서적 고통 자체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는 사람들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성실성과 학업지연과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성실성이 높을수록 학업지연 수준은 낮아지는데, 문제중심적 대처가 이러한 영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실할수록 소진을 덜 경험한다는 박현숙, 이영애(2009), 학습목표 지향성은 문제중심적 대처를 매개로 탈진감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손영은(2010) 연구와 부분적으로 맥락을 같이한다. 성실한 사람은 과제에 대한 조직력과 성취 욕구가 강하고, 목적 지향적이며, 자신의 의무이행에 철저하다는 특성(김동일, 2012) 상 일반적으로 과제 난이도가 어렵거나 과제량이 많아 부담이 된다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신경증과 학업지연과의 관계에서 문제중심적 대처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신경증이 높을수록 학업지연도 높아지는데, 문제중심적 대처가 이러한 영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제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원이나 문제 그 자체를 변화시키려 하거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 신념, 기대를 변화시키는 노력들이 강조되는 대처전략이다(추상엽, 임성문, 2010). 하지만 신경증적인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경향이 있으며(고춘예, 2012; 한태영, 2005; Maslach, Schaufeli & Leiter, 2001) 직무나 학업장면에서 심리적 소진도 많이 경험한다(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이자영, 2010; 박현숙, 이영애, 2009). 정지현(2000)의 연구에서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생각해 나가면서 점점 더 나쁜 결과를 지각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문제에 부정적인 종결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사고는 성격과 함께 보았을 때,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이 높더라도 소극적 대처방식은 시험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안현주(2006)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소극적 대처방식은 대개 사건을 직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사건 자체를 회피하려는 역기능적 반응으로 인식되고 있고(최해연, 2000) 학업지연간의 관계도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연, 2001). 반면 소극적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이 개인을 압도하는 단계에서 스트레스 수준을 일정 기간 억제하거나 낮은 통제상황에서 수반되는 무기력감을 다룸으로서(Terry & Hynes, 1998)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취해지기 전까지 개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적응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극적 대처의 양면적 기능은 학업지연에 대한 일관된 영향을 보이고 있는 성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업지연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소극적 대처방식인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사고는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연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김정희, 2003; 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Ellis & Knuas, 1977; Burka & Yuen, 1990; Van Eerde, 2003)에서는 불안, 평가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 시간관리 기술, 비합리적 사고 극복 전략 등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하여 탐색해 왔고, 또한 몇몇 연구(박보람, 2012; 배대식, 2009; 서은희, 2006; 임성문, 2006; 홍은순, 2011)를 통해 학업지연을 보이게 되는 심리내적 경로를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지연행동을 극복하기 위한 변인들을 입증하였으며, 각 개인별 심리적 특성에 따른 처치의 효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의 성격에 기반하여 지연행동 개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변인들을 연구한 결과는 거의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개인의 성격 요인이 학업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조절하는지 확인함으로써 특정 성격 요인이 학업지연을 보일 때 보다 효과적인 개입 변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성격 유형에 따라서 학업지연에 개입해야 하는 초점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는 적극적 대처인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는 적응적 반응 보았으며, 소극적 대처는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는 부적응적 반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문제중심적 대처가 학습상황에 몰입하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긴장되고 압박스러운 상황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학업지연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격유형에 따라서 다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강조해야 함을 시사한다.

성실한 청소년들이 과제지연행동을 보이는 경우라면, 과제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과제에 참여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적 어려움, 즉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실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문제중심적 대처를 하게 되면 과제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며 학습몰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연행동을 보이는 성실형 청소년들에게 상담자는 문제해결기술, 시간관리 기법과 같은 직접적이고 행동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신경증적인 청소년에게 학업지연 상황에서 과제에 초점을 두는 문제중심적 대처는 오히려 지연행동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에게 문제중심적 대처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평가에 대한 염려, 불안, 낮은 자기효능감, 충동성을 가지고 있는 신경증적인 청소년들은 대부분 동일 과제에 대해서도 다른 학생들보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자신의 과제 수행에 대한 확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입이 학업지연 극복에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의 한 지역에 거주하는 6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고등학생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자기보고식 질문 사용이 갖는 측정상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격, 스트레스대처, 학업지연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각 변인들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을 측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사나 부모의 보고를 함께 반영하도록 연구를 설계하여 자기보고식 설문 of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서 성격 요인을 성실성과 신경증으로 분리하여 고려하였는데, 성격 요인 간의 복합적 양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교적 항상성을 띄는 특성들의 총합(Allport, 1936; Eysenck, 1970)이기 때문에 단일적으로 보기 보다는 성격 특성들의 복합적 작용을 바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격 변인들을 독립적으로만 고려하는 경우, 특정 성격 요소가 다른 성격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수행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고(Chowdhury &

Amin, 2006) 성격 요인에 의한 영향력이 부정확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Connor-Smith & Flachsbart, 2007)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성격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를 각각 보았다. 하지만, 여러 선행 연구(신효정 외, 2012; Stone & Neal, 1984; Tennen, Affleck, Armeli & Carney, 2000)을 통해서 개인은 하나의 상황일지라도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를 혼합하여 사용한다고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며 상호의존성이 있음이 밝혀졌다(Dewe, 2003). 본 연구에서도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고춘예 (2012). 보건교사의 5요인 성격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지각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1(2), 95-111.
- 김광숙, 김정희 (2007). 꾸물거림과 성격의 5요인,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4), 933-947.
- 김남순, 박수만 (2010). 5요인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 중등 교육연구, 22, 21-46.
- 김동일 (2012). Big5 성격검사 : 아동·청소년용 전문가 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 김동일, 김명찬, 남지은, 강은비, 오지원, 장정현 (2013). 부모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학업 미루기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매개효과 모형. 아시아교육연구, 14(2), 29-50.
- 김수안, 민정환 (2006). 자신의 감정에 압도된 사람들의 성격, 정서특성 및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0(3), 45-66.
- 김수주 (200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희 (2008). NEO아동성격검사에 따른 초등학생의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2003). 습관적 지연 극복을 위한 집단훈련의 효과 검증 : 대학생의 학업과 관련하여. 상담학연구, 4(4), 685-698.
- 김정희 (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등학생의 성격요인과 학업지연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 성실성과 신경증을 중심으로

- 김지영 (2005). 충동성,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영 (2003). 고교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따른 문제행동의 차이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2003). 완벽주의, 충동성, 자기효능감 및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지연 (2002). 자기효능감 및 완벽주의 성향과 지연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경 (2008). 비합리적 신념과 성격 5요인이 사무직 근로자의 업무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보람 (2012).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호, 서은희 (2005). 여자 대학생들의 학업적 지연행동의 실태 및 원인분석. 교육학연구, 43(2), 115-134.
- 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이지영 (2010).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4(1), 81-93.
- 박재우 (1998). 과제의 자아 위협도와 완벽주의가 과제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 이영애 (2009). 놀이치료자의 5요인 성격특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35-47.
- 배대식 (2009). 실패공포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업 동기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62-463.
- 서미, 최보영, 조한익 (2006). 생활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2), 271-288
- 서은희 (2006). 타인 지향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요인들의 매개효과. 미래교육연구, 19(2), 24-41.
- 손영은 (2010). 스트레스 상황에서 판매원의 목표 지향성과 탈진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정, 최현주,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장유진, 이상민 (2012).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 억제효과를 중심으로 한 단기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9(2), 289-309.
- 안현주 (2006). 고등학생의 시험불안에 대한 학업적 자기조절동기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호작용효과. 이화교육논총, 16, 293-303.

- 이동귀, 박현주 (2009). 대처양식 집단에 따른 꾸물거림 및 정신건강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3(2), 43-57.
- 이선주 (1995). 특성 불안 및 통제 소재와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 고교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미,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이옥주 (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 양식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3), 77-85.
- 이화진 (2011). 초등학교사의 5요인(Big Five) 성격 특성과 직무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식과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성문 (2006). 대학생의 만성적 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초기 부적응도식. 한국청소년연구, 17(2), 185-211.
- 정지현 (2000).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파국적 사고경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석준, 김영아 (2011). Tinto의 「분리-전화-통합」 모델에 입각한 대학생생활적응검사 I·II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8(2), 235-262.
- 추상엽, 임성문 (2010).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 : 경험회피의 매개효과와 문제중심 대처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7(2), 309-332.
- 최정락 (2012). 성격과 수행간의 비선형적 관계 : 직무창의성의 조절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연 (2001).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연 (2000). 정서중심적 대처의 재개념화 : 기능적 유사성에 근거한 대처차원의 구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태영 (2005). 청소년의 학교장면 스트레스 : 성격 및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 학교, 2(2), 177-197.
- 함경애, 송부옥, 노진숙, 천성문 (2011). 남자 중학생을 위한 학업적 지연행동 극복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상담학연구, 12(3), 861-879.
- 허창구, 이철희, 신강현, 이종현 (2010). 경험논문 : 외향성과 신경증이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5(3), 445-462.
- 홍성희 (2009). 공연예술전공 대학생의 목표성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 예술교육연구, 7(1), 191-204.
- 홍성두 (2011). 학습장애 위험군 청소년들의 성격 특성 탐색 연구. 학생장애연구, 8(1), 25-42.
- 홍영수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문제 해결능

- 력의 완충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0, 7-33.
- 홍은순 (2011). 고등학생의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tken, M. E. (1982). A personality profile of the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1982).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3, 722.
- Allport, G. W., & Odbert. H. S. (1936). Trait-names : A psycho-lexical study. *Psychological Monographs*. 47(1, Whole No. 211).
- Bolger, N. (1990). Coping as a Personlaity Process: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3), 525-537.
- Bolgerm N., & Zuckerman, A. (1995). A frame for studying personality in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890-902.
- Burka, J. B., & Yuen, L. M. (1983). *Procrastination : Why you do it and what to do about it*. Reading, MA: Addison-Wesley.
- Chowdhury, M. S. & Amin, M. N. (2006). Personality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 Interactive effects of conscientiousness and agreeableness on students' performance in principles of economic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4(4), 381-388.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I. S.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 Erlbaum.
- Connor-Smith, J. K., & Flachsbart, C. (2007).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cop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6), 1080-1107.
- Dewe, P. (2003). A closer examination of the patterns when coping with work-related stress: Implications for measuremen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6(4), 517-524.
- Ellis, A., & Knaus, W. J. (1977). *Overcoming procrastination*. New York: Signet Books.
- Eysenck, H. J. (1970). *The structure of human personality* (3rd ed.). London: Methuen.
- Ferrari, J. R. (2001). Procrastination as self-regulation failure of performance : Effects of cognitive load, self-awareness, and time limits on 'working best under pressur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5, 391-406.
- Ferrari, J. R., Johnson, J. L., & McCown, W. G. (1995). *Procrastination and task avoidance: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New York: Plenum Press.

- Fickova, E. (2001). Personality regulators of coping behavior in adolescents. *Studia Psychologica*, 43, 321-329.
- Folkman, S. and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Haycock, L. A., McCathy, P., & Skay, C. L. (1998). Procrastination in college students :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6, 317-324.
- Hewitt, P. L., & Flett, G. L. (1996). Personality traits and the coping process. In M. Zeidner & N. S. Endler (Eds.), *Handbook of coping* (pp. 410-433). London: Wiley.
- Hill, M. B., Hill, D. A., Chabot, A. E., & Barrall, J. F. (1978). A survey of college faculty and student procrastination. *College Student Journal*, 12(3), 256-262.
- Johnson, J. L., & Bloom, A. M. (1995). An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th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to variance in academic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127-133.
- Kachgal, M. M., Hansen, L. S., & Nutter, K. J. (2001). Academic procrastination prevention/intervention: Strategies and recommendations. *Journal of Developmental Education*, 25, 14-24.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Mc Graw Hill.
- Lay, C. H. (1986). At last, my research article on procrastin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474-495.
- Lay, C., & Brokenshire, R. (1997). Conscientiousness, procrastination, and person-task characteristics in job searching by unemployed adults. *Current Psychology : Developmental, Learning, Personality, Social*, 16, 83-96.
- Lay, C. H., Kovacs, A., & Danto, D. (1998). The relation of trait procrastination to the big-five factor conscientiousness : An assessment with primary-junior school children based on self-report sc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5, 187-193.
- MacCallum, R. C., Zhang, S., Preacher, K. J., & Rucker, D. D. (2002). On the practice of dichotomization of quantitative variables. *Psychological Methods*, 7(1), 19-40.
- Mandel, H. P., & Marcus, S. I. (1988). *The psychology of underachievement : Differential diagnosis and differential treatment*. New York : Wiley.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 Psychology*, 52, 397-422.
- Mason, C. A., Tu, S., & Cauce, A. M. (1996). Assessing moderator variables: Two computer simulation stud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6, 45-62.
- McCown, W., Petzel, T., & Rupert, P. (1987). An experimental study of some hypothesized behaviors and personality variables of college student procrastinator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 781-786.
- McWilliams, L. A., Cox, B. J., & Enns, M. W. (2003). Use of the Coping Inventory for Stressful Situations in a clinically depressed sample : Factor structure, personality correlates, and prediction of distres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9, 423-437.
- Mount, M. K., & Barrick, M. R. (1995).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13, 153-200.
- Pacht, A. R. (1984). Reflection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386-390.
- Rothblum, E., Solomon, L., & Murakami, J. (1986).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procrastin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87-394.
- Schouwenburg, H. C., & Lay, C. H. (1995). Trait procrastination and the Big Five factors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481 - 90.
- Schouwenburg, H. C. (2004). Academic procrastination : Theoretical notions, measurement, and research. In H. C. Schouwenburg, C. H. Lay, T. A. Pychyl, & J. R. Ferrari (Eds.), *Counseling the procrastinator in academic settings* (pp. 3 - 17).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ilver, M. (1974). Procrastination. *Centerpoint*, 1, 49-54.
- Spitzer, R. L., Gibbon, M., Skodol, A. E., Williams, J. B. W. & First, M. B. (1989). *DSM-III-R casebook : A learning companion to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iatric Press.
- Steel, P. (2007). The nature of procrastination : A meta-analytic and theoretical review of quintessential self-regulatory failure. *Psychological Bulletin*, 133(1), 65-94.
- Stone, A. A., & Neale, J. M. (1984). Effects of severe daily events on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37-144.
- Stone-Romero, E. F., & Anderson, L. E. (1994). Techniques for detecting moderating effects: Relative statistical power of multiple regression and the comparison of

- subgroup-based correlation coeffici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9, 354-359.
- Tennen, H., Affleck, G., Armeli, S., & Carney, M. A. (2000). A daily process approach to coping: Link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merican Psychologist*, 55, 626-636.
- Terry, D. & Hynes, G. (1998). Adjustment to a Low-Control Situation: Reexamination the Role of Coping Respons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078-1092.
- Van Eerde, W. (2003). A meta-analytically derived nomological network of procrastin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401-1418.
- Vollrath, M., Torgersen, S., Alnaes, R. (1995). Personality as long-term predictor of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117-125.
- Vollrath, M. (2001). Personality and stress.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2, 335-347.
- Watson, D. C. (2001). Procrastination and the five-factor model: A facet level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49-158.

#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 Focus on Conscientiousness and Neuroticism**

Eun-bi Kang

Sinseo Elementary School

Dong-il Kim

Myeung-chan Kim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y on the relation of personality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300 highschool students in Gyeonggi participated in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y. The outcomes of this study were shown as follows. First, there was the meaningful moderating effect of problem-focused coping between conscientiousnes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 other words, conscientious students who use problem-focused coping did less academic procrastination. Also, the problem-focused coping style nega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urotic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at is, neurotic students who use problem-focused coping did more academic procrastination. Findings suggest that effectiveness of coping strategies differ as to personality.

*Key words* : *academic procrastination, coping strategy, problem-focused coping,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moderating effect*

